

## 힘하고 어려운 길

법없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질까. 우리생활 주변에는 각종 법률이 사회생활을 규제하기 위해 강제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면 국민생활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 2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145개의 법률이 있는데 이 중에 ‘출판및인쇄진흥법’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인쇄업계는 현행법을 分法해서 인쇄분야만을 독립시킨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2003년2월27일 발효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은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식정보산업으로 거듭나서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모호한 내용 때문에 인쇄가 간행물을 발간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오인 되는 등 출판산업의 하부구조로 인식되는 사례마저 낳고 있다.

흔히 인류의 3대 발명품으로 나침반, 화약, 금속활자를 꼽곤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선조들이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가 이를 역사적 사실로 입증하고 있다.

인쇄문화산업은 문화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인쇄물 생산을 통해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있으며 직접 수출 및 각종 수출상품의 포장인쇄를 담당하는 등 엄청난 부가가치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효자인 셈이다.

선진국에서는 인쇄산업을 전자산업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경쟁에서도 뒤처지면서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단체수의계약 혜택도 사라짐으로써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문화와 정보의 시대에 살면서 인쇄업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잡지, 출판산업 및 문화산업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쇄품질인증제 실시, 수출진흥사업, 인쇄전문단지 조성, 기술 및 수출 전문인력 양성, 인쇄문화의 위상제고 사업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안의 국회제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타당성심사를 통과해서 의원 10명 이상의 발의자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이 제출된 후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때에는 조문별 예산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소관위원회 심의 통과후에 법사위원회로 넘겨지고 까다로운 심사 후에 국회본회의로 넘겨져 통과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한 곳에서 깨끗하면 거기서 그만이다.

결론은 한가지 뿐이다. 인쇄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응집된 힘을 발휘한다면 법제정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보이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지거나 콩가루 집안이 된다면 법제정 추진은 신기루 현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세익 · 편집주간)



“

결론은 한가지 뿐이다. 인쇄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응집된 힘을 발휘한다면 법제정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보이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지거나 콩가루 집안이 된다면 법제정 추진은 신기루 현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